

# '가방보다 주얼리시대'

### 익산 보석문화산업 '개척'... 민·관·학 9개 기관·단체 활성화 협약식

익산시가 주얼리시대 대중화를 열어가는데 보석문화산업을 개척한다. 명품 주얼리시장이 클로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속에 가방보다 빠르게 명품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익산시가 보석을 문화산업으로 전환시켜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익산시가 주얼리시대 대중화를 열어가는데 보석문화산업을 개척한다. 명품 주얼리시장이 클로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속에 가방보다 빠르게 명품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익산시가 보석을 문화산업으로 전환시켜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는 국내 유명 백화점의 VIP, WIP 고객들의 올해 명품 주얼리·시계 매출이 급성장하는 등 시장분석을 토대로 보석산업은 단순 소비를 넘어 문화와 '자산'이 결합해 급성장한다고 판단 대중적 보석문화산업 발전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익산 보석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영등동 귀금속공업단지 내 귀금속연합회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익산시 정현율시장, (사)익산주얼리협회 김대길 협의회장, (사)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회장, (사)패션산업시험연구원 민홍기 대표이사, 원광대학교 금속·주얼리디자인학과 고승근 교수, 원광보건대학

교 3D제품디자인과 양훈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주얼리카공예과 김용 교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성기 본부장,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문진호 대표이사 등 9개 기관·단체가 함께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보석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교류 △보석문화 콘텐츠 발굴 △보석공예장인 양성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 △익산 보석 제품 및 작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익산보석산업에 이끌어 가는 민간단체 및 보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 산업단지 관리와 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정 기관 등이 모여 보석산업이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국가적 문화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한편 협약식과 함께 첫 번째 공동프로젝트로 익산 보석문화산업을 알리기 위한 제1회 보물찾기 캠페인! 축제' 후원 기탁식을 진행했다.

익산 내 귀금속보석 20개 업체가 한 마음 한뜻으로 4천5백만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 2378점을 기탁해 보석문화산업을 알린다.

기탁된 보석들은 28일부터 30일까지 영등동 귀금속보석단지에서 진행되는 '제1회 보물찾기 캠페인! 축제'의 참가자 상품과 기념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석이 문화산업으로, 문화 경제로 진화하고, 보석산업이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 우리시가 대한민국 대표 보석문화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은 1975년 국내 유일의 귀금속보석공업단지가 최초로 조성된 곳으로 한국 수출산업 선도했던 익산의 귀금속보석 산업이 1990년대 높은 인건비와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제품의 공세에 밀려 점점 존재가 희미해졌으나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기관, 학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익산시가 2021년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사람이 보석이 되는 문화도시 익산'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보석이 산업을 넘어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 평생학습의 바다로!

### '2022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실시

군산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2022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행복학습센터 등 76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2일 오전에 개최되는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는 그동안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 군산시 평생교육 허브 역할에 담당했던 군산시 평생학습관, 한글교육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사회생활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군산시 늘푸른학교' 등의 학습자가 그동안 학습했던 평생학습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무대 행사다.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 - 평생학습의 바다로!'란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2022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는 80여개의 평생교육 기관·단체·동아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동네문화카페 및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시민들이 직접 공연에 참가하는 평생학습 예술제 등 다채로운 무대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

어린이 통기타 연주, 장구 난타, 댄스 합창 및 시낭송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 총 12개팀의 무대공연이 시민과 함께한다.

42개 부스에서는 4차산업 관련 VR, AR, 미디어영상 체험, 동네문화카페,

이날 오후에는 관내 평생학습기관·단체·동아리 등 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평생학습인 예술제로 K-POP, 댄스, 하프, 가요 및 우쿨렐레 등 총 14개 팀의 시민 참여 무대공연이 열린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시,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순항'

군산시는 원도심 지역인 월명동과 해신동 일원의 침수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통체증과 공사 중 발생 할 수 있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단축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원도심 일원의 기존에 설치된 합류식 관거를 우수와 오수로 분류한 뒤 가정 내 정화조를 폐쇄해 생활하수와 생활오수만을 우수관으로 연결하고 기존 합류식 관거는 우수관거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돼 하천 및 연안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주민생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특히 신속 건물은 정화조 설치 비용이 절감되고 기존 건물은 정화조가 폐쇄돼 매년 청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최종보고회

익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 대도약비대를 열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고회 시 재검토 또는 보완 요구 공약에 대한 최종수정을 통해서 공약사항 94건을 확정하고, 향후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공약사업에 대해 공약별 정책목표, 연도별 재원확보 대책과 세부추진계획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수정 보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민선 8기 공약은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국제철도 도시 △그린바이오 신산업이 성장하는 도시 △위러벨을 누리는 생태친화 정원도시 △일상에 서 누리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강 보건의료 행복도시 △앞선 교육을 실현, 미래인재 육성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등 7대 분야로 나뉜다.

특히 지난 7월 28일, 28일 이틀에 걸친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투자제한 및 실천 가능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등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 보

# 익산시, 지역청소년 찾아 맞춤형 안전망 강화

### 관내 10개 학교 약 360여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지역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든든한 청소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금속공예 체험을 마련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 학교, 약 36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익산시 위기청소년의 실태조사와 청소년 안전망 정책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위기청소년의 어려움과 욕구에 맞춰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계획됐다.

우선 지난 14일 오전에는 춘포초등학교에 방문해 캐리커처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이리북중학교에서 신청화상 20명생을 대상으로 금속공예활동을 펼쳤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시는 청소년에게 역할된 정서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들은 신체 및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용/동작 치유프로그램과 학교폭력예방, 스트레스완화, 부모-자녀 역할이해 라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된 역할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본 프로그램으로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반대로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프로그램 참여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어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익산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에 직면한 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전 예방차원의 특화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대한 문의는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 (☎063-859-5929)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익산시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지역을 연계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